

# Korea Corporate Pension Update

Issue 11, 2023 Q1

본 보고서(Korea Corporate Pension Update)는 다양한 출처에 공개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시장, 퇴직연금 사업자, 그리고 퇴직연금 펀드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음. 보고서 하단에는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으며, 해당 자료가 정확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서술하였음.

## DC제도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Check Point

### 2023.7.11 DC제도 운영 회사의 디폴트옵션 반영 기한 종료

- 사전지정운용제도 즉, 디폴트옵션은 2022.7.12 부로 시행되었으나 DC제도를 기운영하고 있는 회사에는 개정 내용을 1년 이내에 반영하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됨
- 따라서, 2023.7.11 안에 DC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는 아래 절차에 따라 디폴트옵션을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해야 함



#### 회사(사용자)

\*2023년 3월말 기준,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평균 7개 디폴트옵션 상품 보유  
(대부분의 사업자가 초저위험 1개/저위험 2개/중위험 2개/고위험 2개의 인가된 상품 제시 중)

- 1 디폴트옵션상품 라인업\* 결정  
- 회사 사정에 맞추어 디폴트옵션 전체 또는 일부 규약에 반영



#### 근로자대표

\*\*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해당 노조이며,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

- 2 변경된 규약에 근로자대표\*\* 동의 표시  
- 동의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변경 규약 신고



#### 퇴직연금사업자

- 3 직원이 자신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  
- 규약에 명시된 상품 중 직원 위험성향에 맞는 상품 지정하여 가입

### 중요 Check Point

- 회사의 디폴트옵션 도입여부와 상관없이, 2023.7.12이후에는 기존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동일 상품으로 재예치되지 않습니다.
- 기존 상품 만기 도래 시 만기 시점 금리가 높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던 포괄운용지시도 불가능합니다.
- 기존 규약에 신규 가입자에 적용되는 자동운용 상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개정 사유로 해당 조항의 적용이 불가합니다.(기변경)\*
- 즉,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만기가 도래했거나 최초 운용지시가 없는 적립금은 금리가 낮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은 회사의 법적 의무사항 이므로, **미도입 시 추후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기에 2023.7.11까지 규약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 따라서, DC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가 올해 상반기 일시에 규약 변경 신고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퇴직연금컨설팅사와 디폴트옵션 도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스템 및 계약서/약관 개정 사유로 퇴직연금사업별 적용 시점은 상이할 수 있음

## 퇴직연금 시장 (2022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시장 분석 자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DB**
- 투자 상품의 비중은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각 95.9%, 4.1%로 대부분의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음.
  - 전체 퇴직연금 자산 중 DB 자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2022년 12월 말에는 DB 자산 비중이 다시 증가함. (2022년 6월 56.7% → 2022년12월 58.0%). 이는 상대적으로 원리금비보장형 투자 비중이 높은 DC/IRP의 자산이 시장 침체로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2022년 6월 대비 DB 자산은 245,724억원 증가하였으며 (원리금보장형 253,846억원 증가, 원리금비보장형 8,120억원 감소), 모든 업권에서 원리금보장형 자산이 증가하였음.
- DC**
- 투자 상품의 비중은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각 82.6%, 17.4%로 여전히 대부분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음.
  - 2022년 6월 대비 원리금보장형 자산은 71,202억원 증가하였으나,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은 7,155억원 감소하였음. 최근 퇴직연금상품 제공 이율 상승 및 주식시장 부진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Figure 01. 퇴직연금 시장 요약

(단위: 10억원, %)

운용 방법	자산 규모			총 합	비중
	DB	DC	IRP		
원리금보장형	184,514	67,520	41,912	293,946	88.6%
원리금비보장형	7,855	14,215	15,703	37,773	11.4%
총 합	192,369	81,735	57,616	331,720	100%
비중	58.0%	24.6%	17.4%	100%	

DB ~ 업권별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총 합	비중
은행	76,762	2,640	79,402	41.3%
증권	39,031	3,060	42,091	21.9%
생명보험	56,591	2,148	58,739	30.5%
화재보험	12,130	7	12,137	6.3%
총 합	184,514	7,855	192,369	100%
비중	95.9%	4.1%	100%	

DC ~ 업권별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총 합	비중
은행	47,845	5,294	53,139	65.0%
증권	8,580	7,278	15,858	19.4%
생명보험	9,378	1,514	10,892	13.3%
화재보험	1,717	129	1,846	2.3%
총 합	67,520	14,215	81,735	100%
비중	82.6%	17.4%	100%	

## 퇴직연금 사업자 – DB (2022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사업자 분석 자료는, 각 업권별(은행/보험/증권) DB 및 DC 각각에 대한 운용관리 자산규모 상위 3개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과거 수익률 및 자산규모 등 퇴직연금 자산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 원리금보장형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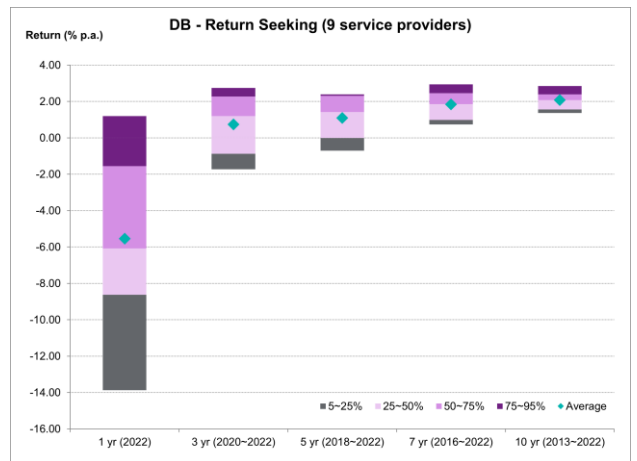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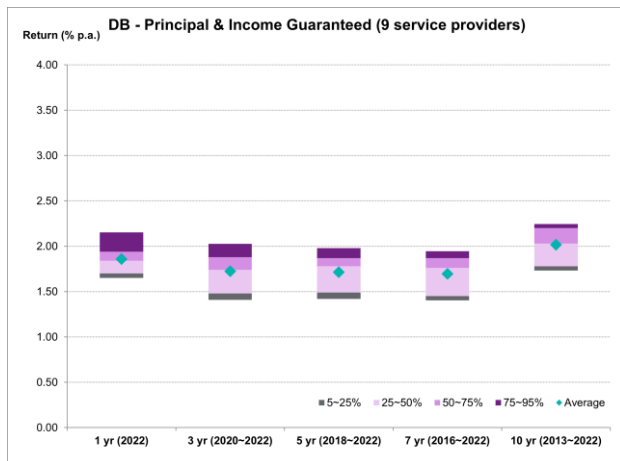
- 9개 사업자 모두 원리금보장형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삼성생명(43,897억원), 신한은행(28,693억원), 하나은행(22,397억원) 순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제공 이율이 높아짐에 따라 1년 수익률이 2022년 6월 대비 대체로 상승하였음.
- 단기 예금 판매가 많은 은행은 보험 및 증권업 사업자 대비 장/단기 수익률 모두 열세 보임.

### 원리금비보장형 포트폴리오

- 2022년 4분기 시장 둔화에 따라 9개 사업자의 평균 1년 수익률이 2022년 6월 대비 하락 (2022년 6월 -4.55% → 2022년 12월 -5.55%)하였으며,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을 제외한 7개 사업자가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함.
- 2022년 은행 상위 3개 사업자에 신규 진입한 KB국민은행의 경우,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대비 단기 수익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Figure 02. DB –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

퇴직연금 사업자	원리금보장형(Principal & Income Guaranteed)					원리금비보장형(Return Seeking)						
	자산규모 (단위:10억)	1년 (2022)	3년 (‘20-’22)	5년 (‘18-’22)	7년 (‘16-’22)	10년 (‘13-’22)	자산규모 (단위:10억)	1년 (2022)	3년 (‘20-’22)	5년 (‘18-’22)	7년 (‘16-’22)	10년 (‘13-’22)
신한은행	14,377	1.7	1.4	1.4	1.4	1.8	561	0.5	2.3	2.3	2.5	2.3
하나은행	12,235	1.7	1.5	1.5	1.5	1.8	797	1.7	2.7	2.4	2.5	2.4
KB국민은행	10,040	1.7	1.4	1.4	1.4	1.7	439	-6.1	0.6	0.8	1.6	2.1
현대차증권	14,381	1.9	2.0	2.0	1.9	2.2	211	-8.8	-0.9	-0.4	1.0	1.6
미래에셋증권	6,255	1.8	1.7	1.8	1.8	2.2	586	-1.9	1.4	1.4	1.9	1.9
한국투자증권	5,649	2.1	1.9	1.9	1.9	2.2	897	-1.6	2.8	2.4	2.4	2.6
삼성생명보험	36,028	1.9	1.8	1.8	1.8	2.0	1,350	-8.6	1.2	1.9	3.2	3.0
교보생명보험	7,275	1.8	1.7	1.7	1.7	2.0	292	-17.3	-1.8	-0.9	0.6	1.3
미래에셋생명보험	4,332	2.2	2.1	2.0	2.0	2.3	442	-7.8	-1.6	0.0	1.0	1.6



## 퇴직연금 사업자 – DC (2022년 12월말 기준)

### 원리금보장형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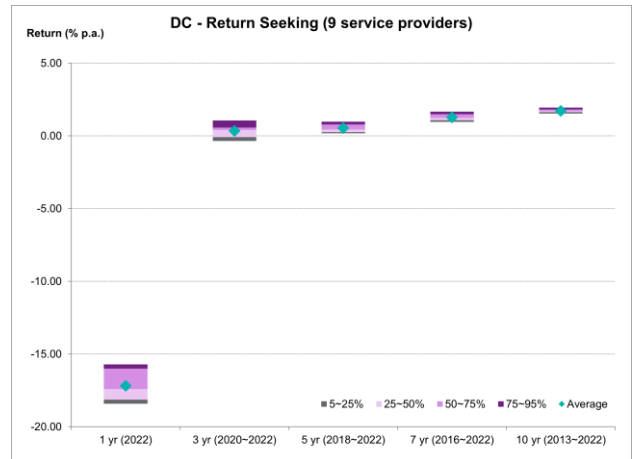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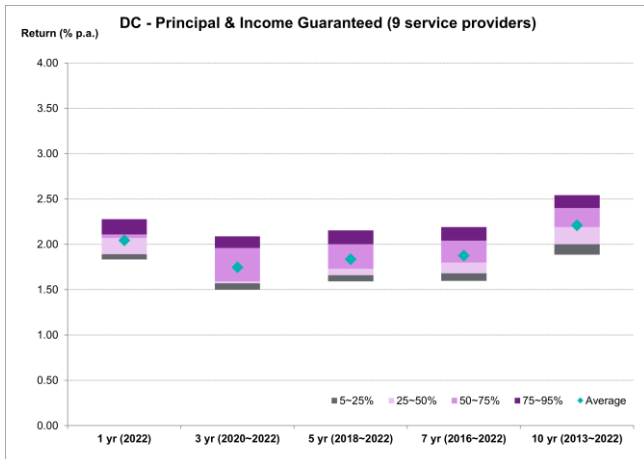
- 9개 사업자 모두 원리금보장형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신한은행(9,856억원), IBK 기업은행(9,391억원), KB국민은행(8,972억원) 순으로 특히 은행권에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제공 이율이 높아짐에 따라 1년 수익률이 2022년 6월 대비 9개 사업자 모두 상승하였음. 특히 2022년 6월 대비 은행 사업자의 장/단기 수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보험사업자와 비슷한 수준을 이룸.

### 원리금비보장형 포트폴리오

- 2022년 하반기 시장 둔화에 따라 9개 사업자 모두 1년 수익률이 2022년 6월말 대비 하락하였고 두자리 수의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하였음.
-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의 매니 무브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사업자 모두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이 감소하였으며, 업권에 관계 없이 원리금비보장형 자산 투자 비중이 2022년 6월 대비 감소하였음.
- 증권사의 경우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자산 금액보다 크거나 유사한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음.

Figure 03. DC –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

퇴직연금 사업자	원리금보장형(Principal & Income Guaranteed)						원리금비보장형(Return Seeking)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1년 (2022)	3년 (‘20-’22)	5년 (‘18-’22)	7년 (‘16-’22)	10년 (‘13-’22)		1년 (2022)	3년 (‘20-’22)	5년 (‘18-’22)	7년 (‘16-’22)	10년 (‘13-’22)
KB국민은행	9,606	1.9	1.5	1.6	1.6	2.0	1,369	-15.7	-0.2	0.3	1.0	1.6
신한은행	8,956	1.9	1.6	1.7	1.7	2.1	1,382	-15.7	0.6	1.0	1.6	1.8
IBK기업은행	9,691	1.8	1.5	1.6	1.6	2.0	570	-16.0	1.2	0.8	1.5	1.6
미래에셋증권	3,444	2.1	1.6	1.7	1.8	2.2	3,618	-17.5	0.5	1.0	1.7	2.0
삼성증권	1,327	2.1	1.6	1.7	1.8	1.8	1,150	-18.5	-0.1	0.1	1.1	1.5
한국투자증권	1,183	2.3	1.9	2.0	2.0	2.5	1,076	-17.4	0.4	0.3	1.0	1.6
삼성생명보험	4,859	2.0	2.0	2.1	2.1	2.3	621	-17.4	0.2	0.3	1.1	1.7
교보생명보험	2,183	2.1	2.0	2.0	2.0	2.4	506	-18.1	0.8	0.8	1.3	1.8
미래에셋생명보험	896	2.2	2.1	2.2	2.3	2.6	268	-18.3	-0.5	0.4	1.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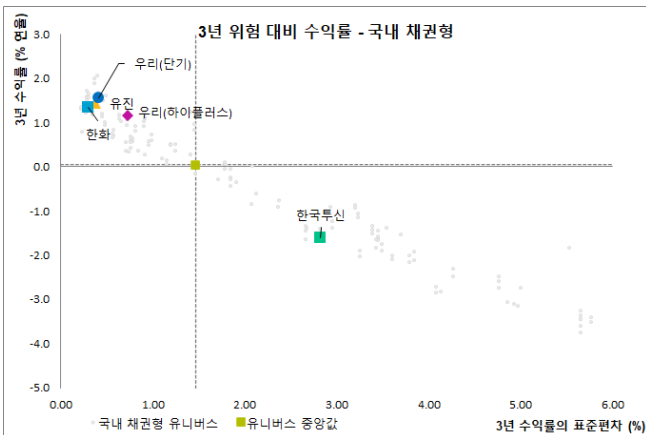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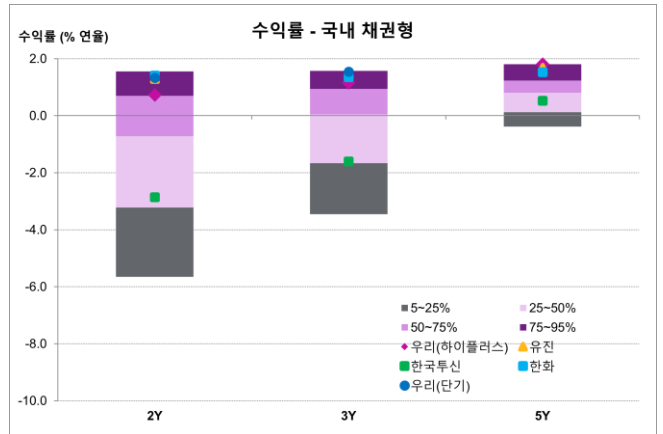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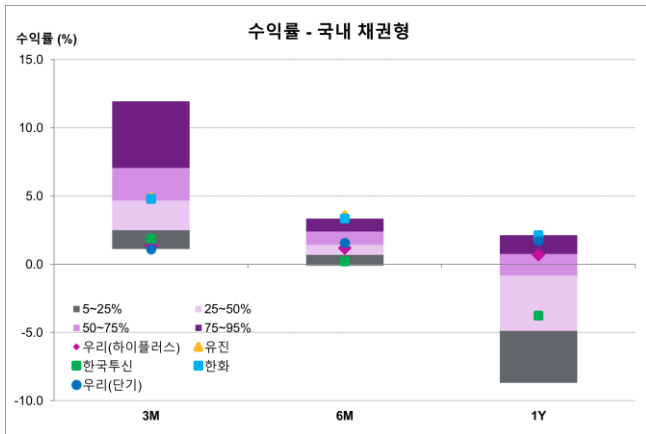
# 퇴직연금 펀드 – 국내 채권형 (2022년 12월말 기준)

Figure 04. 퇴직연금 – 국내 채권형 펀드

요약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b>자산규모 및 수익률의 범위</b>							
상위 5%	47	11.95	3.36	2.14	1.55	1.58	1.81
상위 25%	10	7.06	2.40	0.75	0.69	0.94	1.23
중앙값	2	4.66	1.42	-0.83	-0.72	0.05	0.81
하위 25%	0.2	2.51	0.70	-4.89	-3.22	-1.67	0.12
하위 5%	0.0	1.12	-0.10	-8.69	-5.66	-3.46	-0.38
<b>총 데이터의 수 (개)</b>	<b>227</b>	<b>213</b>	<b>206</b>	<b>193</b>	<b>174</b>	<b>147</b>	<b>103</b>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우리하이플러스채권증권투자자산신탁 1(채권)ClassC-P	347	1.32	1.19	0.69	0.73	1.16	1.81
유진챔피언단기채증권투자자산신탁(채권) ClassC-P2	187	4.96	3.60	2.01	1.29	1.42	1.68
한국투자퇴직연금증권투자자산신탁 1(공공채)(C)	158	1.87	0.21	-3.76	-2.86	-1.60	0.53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자산신탁(채권) C-RPe(퇴직연금)	128	4.80	3.36	2.14	1.41	1.35	1.53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자산신탁(채권)ClassC-P	60	1.10	1.57	1.72	1.33	1.55	1.79



퇴직연금 펀드 분석 자료는, 한국펀드평가에서 제공하는 국내 채권형, 채권혼합형(채권 비중 60% 이상) 및 주식형 펀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펀드 유형

- 2022년 하반기 4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1.5% 인상되고 시장금리 또한 상승하면서 채권에 비우호적인 시장환경이 조성됨.
- 4분기 레고랜드 사태로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어 회사채 비중이 높은 펀드들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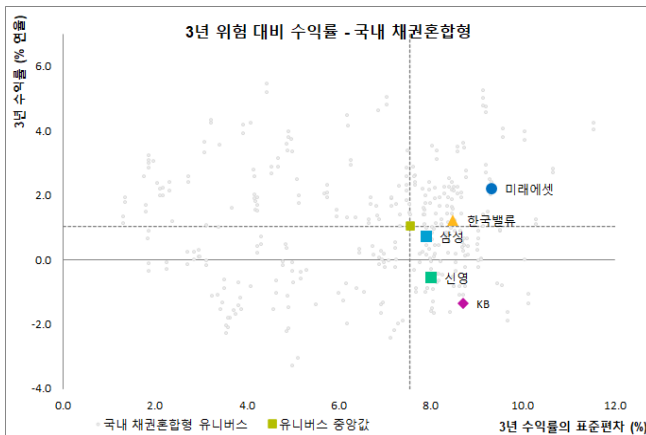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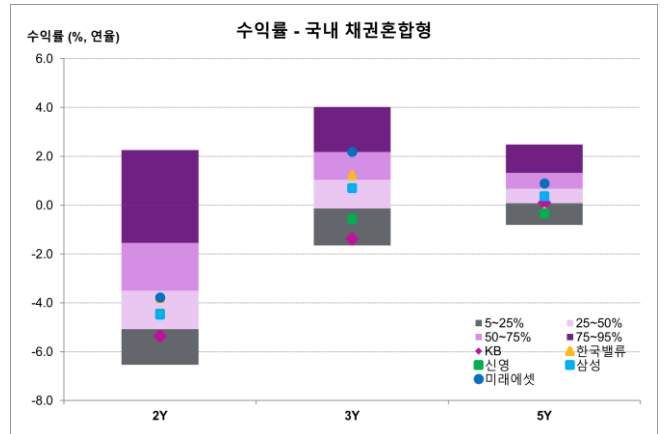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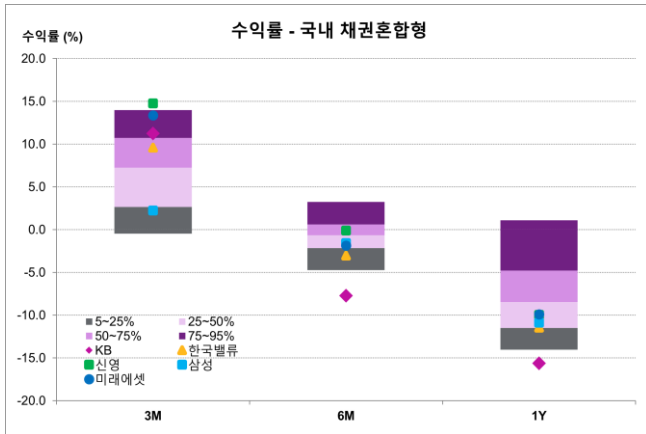
###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 대부분의 펀드 자산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3개의 펀드가 단기채 또는 단기국공채 펀드임.
- 한화단기국공채펀드가 유일하게 2022년 상반기 대비 자산이 증가함.

# 퇴직연금 펀드 - 국내 채권혼합형 (2022년 12월말 기준)

Figure 05. 퇴직연금 - 국내 채권혼합형 펀드

요약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b>자산규모 및 수익률의 범위</b>							
상위 5%	32	13.97	3.23	1.07	2.25	4.02	2.48
상위 25%	5	10.71	0.59	-4.81	-1.55	2.17	1.32
중앙값	1	7.24	-0.67	-8.49	-3.51	1.04	0.68
하위 25%	0.2	2.64	-2.18	-11.51	-5.08	-0.14	0.08
하위 5%	0.0	-0.49	-4.73	-14.05	-6.54	-1.65	-0.81
<b>총 데이터의 수 (개)</b>	<b>456</b>	<b>453</b>	<b>452</b>	<b>443</b>	<b>398</b>	<b>358</b>	<b>306</b>
<b>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b>							
	자산 규모 (단위: 10억)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KB퇴직연금배당40증권투자자산탁(채권혼합)C	884	11.26	-7.71	-15.64	-5.36	-1.37	0.11
한국밸류10년투자퇴직연금증권투자자산탁 1(채권혼합)(C)	385	9.59	-3.03	-11.45	-3.81	1.23	-0.27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투자자산탁(채권혼합)C형	373	14.77	-0.12	-9.96	-4.45	-0.57	-0.34
삼성퇴직연금코리아대표40증권투자자산탁 1(채권혼합)C	223	2.25	-1.58	-10.89	-4.48	0.70	0.37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투자자산탁 1(채권혼합-재간접형)종류C	156	13.36	-1.88	-9.91	-3.78	2.19	0.89



## 펀드 유형

- 2022년 하반기에도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모두 조정을 이어 가며 대부분의 채권혼합형 펀드들이 2022년을 손실로 마감하였음.

##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 2022년 상반기 대비, 운용 자산규모 상위 5개 펀드의 순위는 변동이 없는 가운데, 모든 펀드의 자산규모가 감소함.
- 2022년 하반기 KOSPI가 약 4%, KOSDAQ이 약 9%, 기준 금리가 1.5% 상승하는 등 주식, 채권시장 모두 변동성 확대가 유지되면서 상위 5개 펀드들도 6개월, 1년, 2년 구간에서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며 2022년을 마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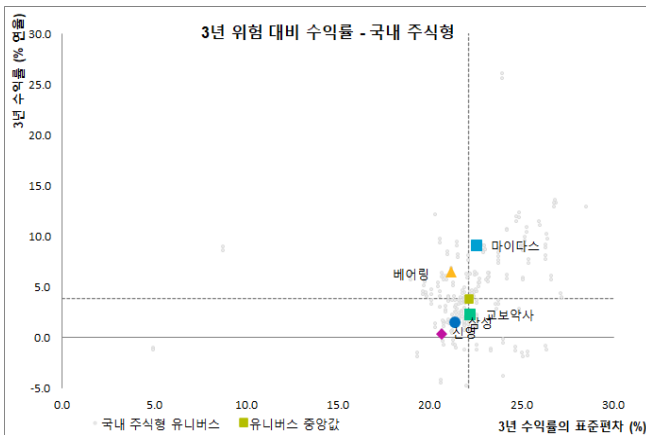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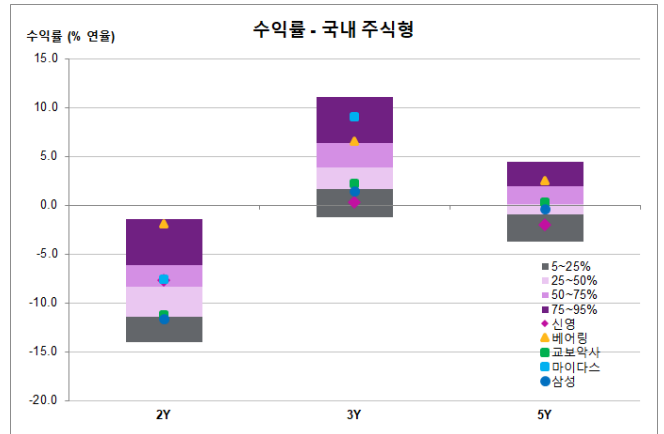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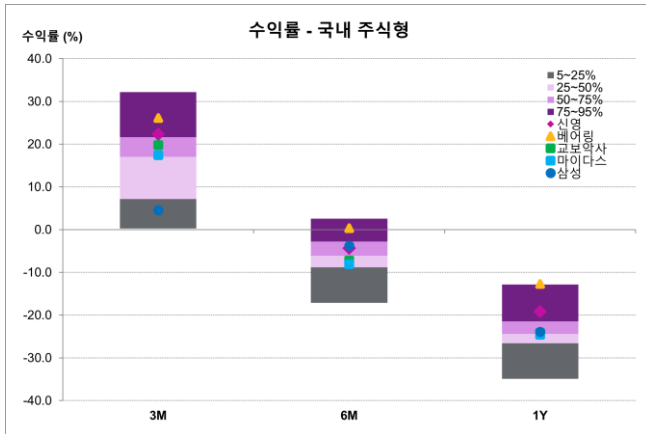
# 퇴직연금 펀드 - 국내 주식형 (2022년 12월말 기준)

Figure 06. 퇴직연금 - 국내 주식형 펀드

요약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b>자산규모 및 수익률의 범위</b>								
상위 5%	19	32.21	2.54	-12.88	-1.43	11.07	4.43	
상위 25%	4	21.61	-2.83	-21.46	-6.12	6.33	1.94	
중앙값	0.6	17.02	-6.10	-24.42	-8.40	3.88	0.08	
하위 25%	0.1	7.17	-8.81	-26.58	-11.48	1.60	-0.95	
하위 5%	0.0	0.25	-17.15	-34.92	-14.00	-1.22	-3.77	
<b>총 데이터의 수 (개)</b>	<b>378</b>	<b>375</b>	<b>374</b>	<b>365</b>	<b>327</b>	<b>260</b>	<b>176</b>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투자신탁(주식)C형	152	22.36	-4.31	-19.16	-7.68	0.30	-2.03	
베어링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ClassC-P2	99	26.11	0.35	-12.72	-1.95	6.51	2.50	
교보약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C-Pe	89	19.79	-7.22	-24.18	-11.20	2.27	0.26	
마이더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주식)C-Pe2	64	17.39	-8.13	-24.62	-7.54	9.05	5.09	
삼성퇴직연금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주식)C	60	4.59	-3.78	-23.92	-11.58	1.44	-0.40	



## 펀드 유형

- 2022년 하반기 KOSPI는 약 4%, KOSDAQ은 약 9%의 조정을 이어가며 대부분의 주식형 펀드들도 저조한 성과를 보임.

##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 운용 자산규모 기준 상위 5개 펀드의 자산규모는 2022년 상반기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됨.
- 자산규모 상위 5개 펀드 중 2개가 배당스타일, 2개가 인덱스 펀드로 구성됨.
- 베어링고배당증권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들 모두 2022년 하반기 손실을 기록함.
- 교보약사와 삼성 펀드 모두 KOSPI200를 추종하나 편입비의 차이에 따라 성과에도 괴리가 발생함.

## Disclaimer

This document was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 substitute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In particular, its contents are not intended by Willis Towers Watson to be construed as the provision of investment, legal,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r recommendations of any kind, or to form the basis of any decision to do or to refrain from doing anything. As such, this document should not be relied upon for investment or other financial decisions and no such decisions should be taken on the basis of its contents without seeking specific advice.

This document is based on information available to Willis Towers Watson at the date of issue, and takes no account of subsequent developments after that date. In addition, past performance is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In producing this document Willis Towers Watson has relied upon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certain data and information obtained from third parties. This document may not be reproduced or distributed to any other party, whether in whole or in part, without Willis Towers Watson's prior written permission, except as may be required by law. In the absence of its express written permission to the contrary, Willis Towers Watson and its affiliates and their respective directors, officers and employees accept no responsibility and will not be liable for any consequences howsoever arising from any use of or reliance on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including any opinions expressed herein.

© 2023 WTW. All rights reserved.

## About WTW

At WTW (NASDAQ: WTW), we provide data-driven, insight-led solutions in the areas of people, risk and capital. Leveraging the global view and local expertise of our colleagues serving 140 countries and markets, we help you sharpen your strategy, enhance organizational resilience, motivate your workforce and maximize performance. Work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you, we uncover opportunities for sustainable success – and provide perspective that moves you. Learn more at [wtwco.com](http://wtwco.com).

## Contact Details

**신윤현, CFA, FRM, CAIA**  
**Head of Investments, Korea**  
+82.2.3430.2550  
[Andrew.shin@wtwco.com](mailto:Andrew.shin@wtwco.com)

**안정선, FSA, FIAK**  
**Head of Retirement, Korea**  
+82.2.3430.2561  
[Chongson.an@wtwco.com](mailto:Chongson.an@wtwco.com)